

KLSI

ISSUE PAPER

www.klsi.org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5년 3월 현재)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윤자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목차]

1. 전체
2. 남녀
3. 규모
4. 산업
5. 시도
6.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
7. 재벌 기업
8. 1만명 이상 거대기업
9. 비정규직 증감
10. 함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siedit

<요약>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233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59만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30만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5%로 통계청 조사(14.3%)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82만명(39.5%)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0만명(19.5%),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2만명(20.0%)이다. 한데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1만명을 정규직 29만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0만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2만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11만명(45.8%),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1만명(32.8%)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0만명(13.0%)으로 줄어든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7%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1.7%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4.3%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2.9%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넷째,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7.7%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7%)이 직접고용 비정규직(7.0%)보다 4배 많다. 특히 현대중공업, GS, 포스코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지난해 162만명(37.3%)이던 비정규직이 올해는 182만명(39.5%)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5년 3월 현재)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윤자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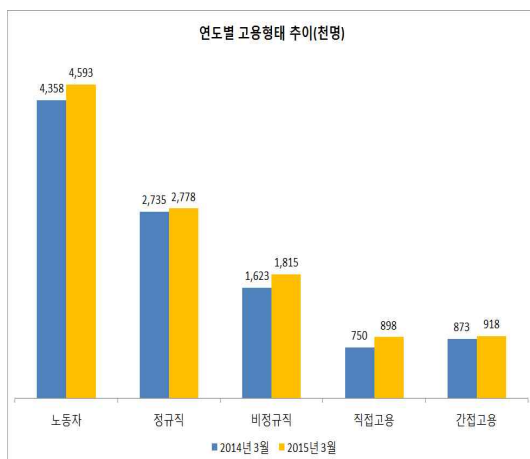
1. 전체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15년 3월 3,233개소로 291개소 증가했고, 노동자는 436만명에서 459만명으로 24만명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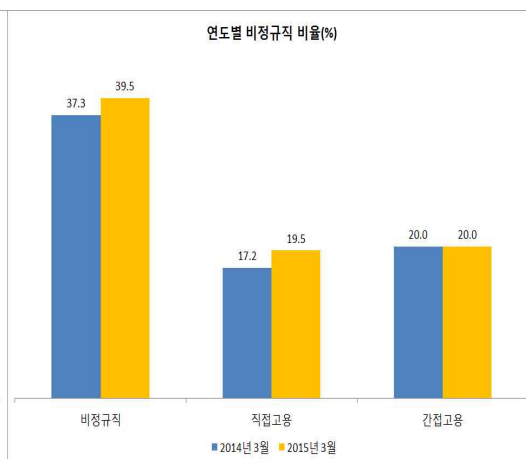
정규직은 274만명에서 278만명으로 4만명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162만명에서 182만명으로 19만명 증가했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75만명에서 90만명으로 15만명 증가했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7만명에서 92만명으로 5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37.3%에서 39.5%로 2.2%p 증가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7.2%에서 19.5%로 2.3%p 증가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20%로 변함없다.

[그림1] 연도별 고용형태 추이(천명)



[그림2]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표1]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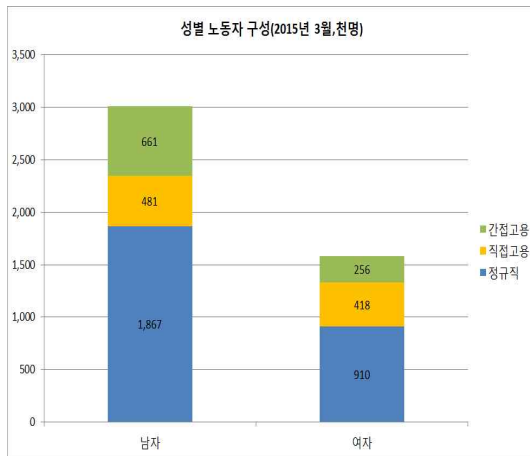
연도	기업수 (개)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2014년 3월	2,942	4,358	2,735	1,623	750	672	873	37.3	17.2	15.4	20.0
2015년 3월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0
증감	291	235	43	192	148	170	45	2.2	2.3	2.9	0.0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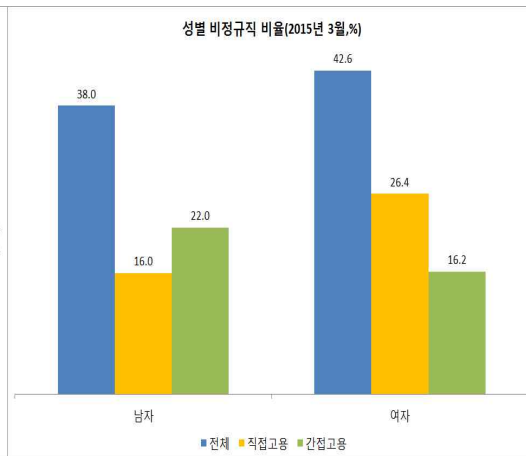
2. 남녀

고용형태공시제 기업에서 일하는 남성 30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14만명(38.0%)이다. 남성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66만명(22.0%)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48만명(16.0%)보다 많다. 여성 노동자 158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67만명(42.6%)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42만명(26.4%)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26만명(16.2%)보다 많다.

[그림3] 성별 노동자 구성
(2015년 3월,천명)



[그림4] 성별 비정규직 비율
(2015년 3월,%)



[표2] 성별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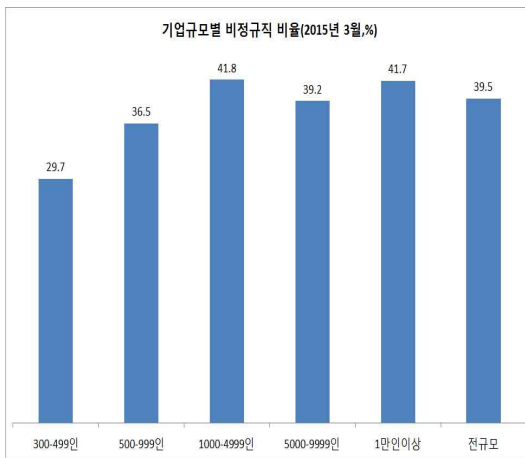
성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남자	3,009	1,867	1,142	481	466	661	38.0	16.0	15.5	22.0
여자	1,584	910	674	418	376	256	42.6	26.4	23.7	16.2
전체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0

3.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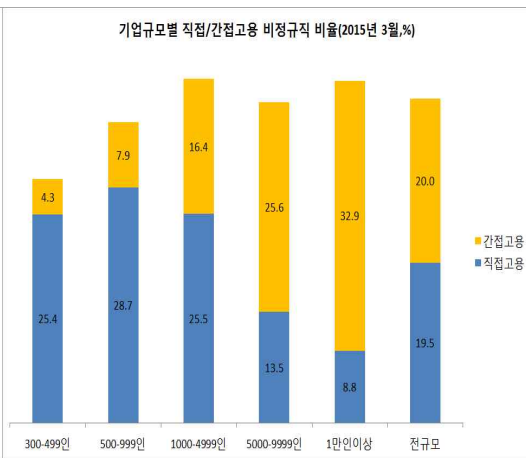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는 300인 미만 기업(214개소 4만 7천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즉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7%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1.7%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4.3%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2.9%다. 이에 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500인 이상 1천인 미만 기업(28.7%)을 정점으로 1만인 이상 거대기업(8.8%)까지 기업규모가 클수록 낮아진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그림5]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2015년 3월,%)



[그림6] 기업규모별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2015년 3월,%)



[표3] 기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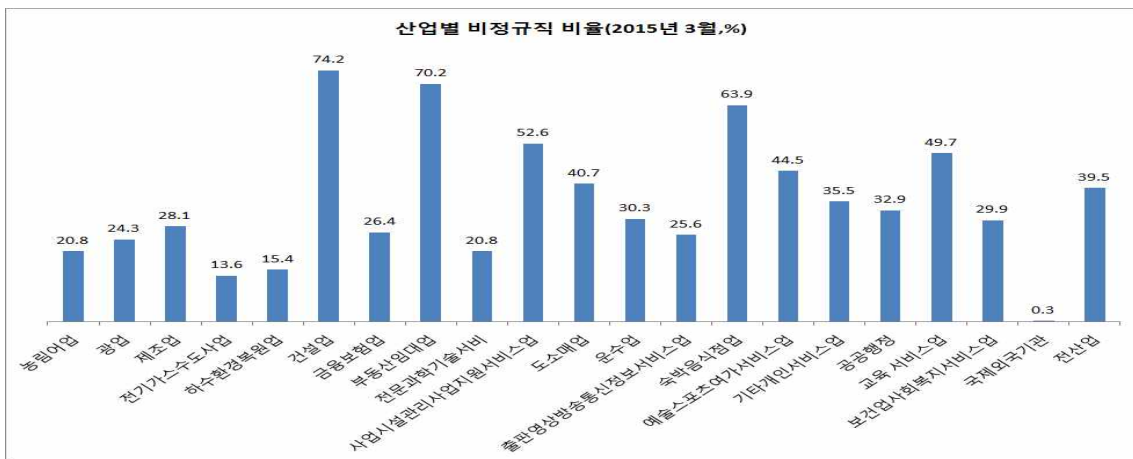
기업규모 (전체노동자 기준)	기업수 (개)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300인 미만	214	47	27	20	18	17	2	41.7	38.2	36.3	3.4
300-499인	1,042	413	290	122	105	101	18	29.7	25.4	24.4	4.3
500-999인	1,092	752	477	275	215	211	59	36.5	28.7	28.0	7.9
1000-4999인	744	1,417	824	593	361	341	232	41.8	25.5	24.1	16.4
5000-9999인	80	536	326	210	73	60	137	39.2	13.5	11.2	25.6
1만인 이상	61	1,429	833	596	126	112	470	41.7	8.8	7.8	32.9
전규모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0
300인 이상	3,019	4,546	2,750	1,796	880	825	916	39.5	19.4	18.1	20.1

4.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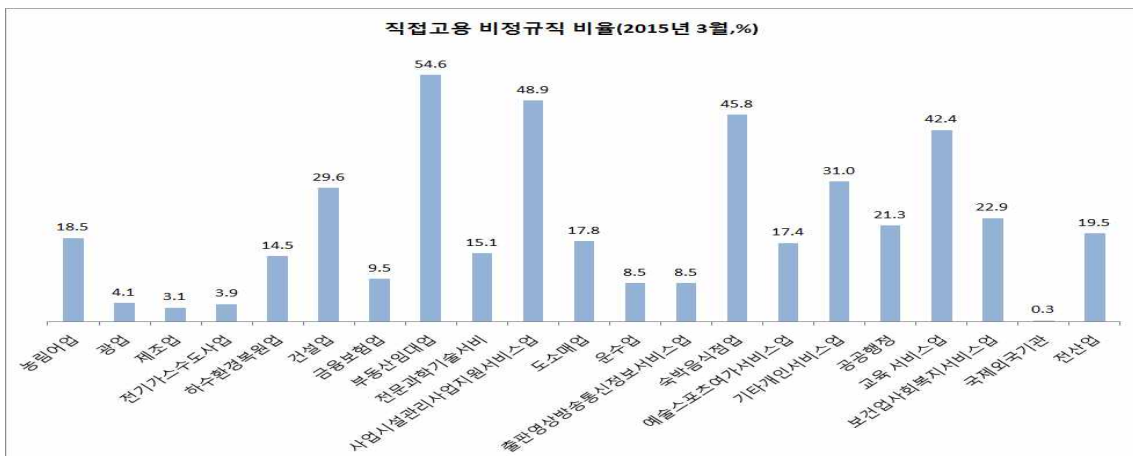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74.2%)과 부동산임대업(70.2%), 숙박음식점업(63.9%), 사업시설관리 및사업지원서비스업(52.6%), 교육서비스업(49.7%)에서 높고, 하수환경복원업(15.4%), 전기가스 수도사업(13.6%), 국제외국기관(0.3%)에서 낮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부동산임대업(54.6%),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48.9%), 숙박음식점업(45.8%), 교육서비스업(42.4%)에서 높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44.6%),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7.1%), 제조업(25.0%)에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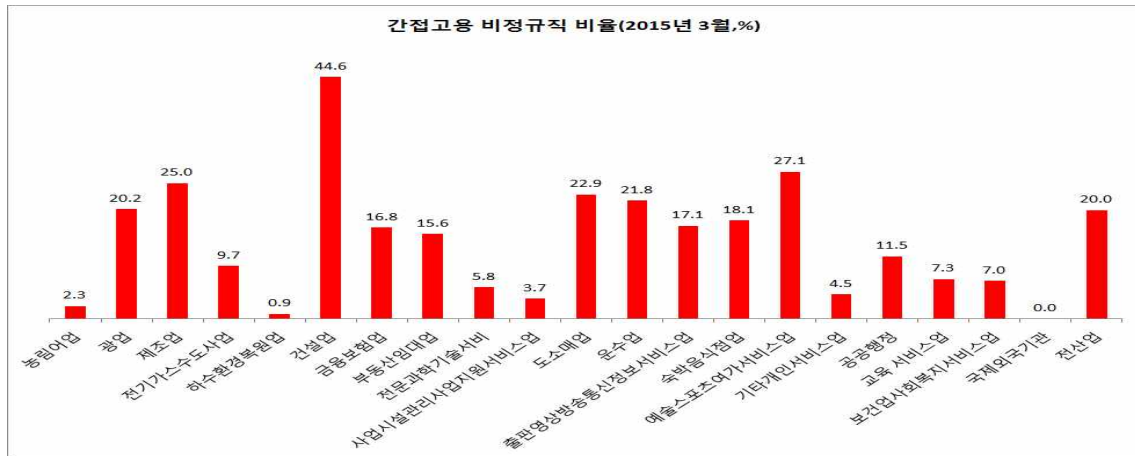
[그림7]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2015년 3월,%)



[그림8]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2015년 3월,%)



[그림9]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2015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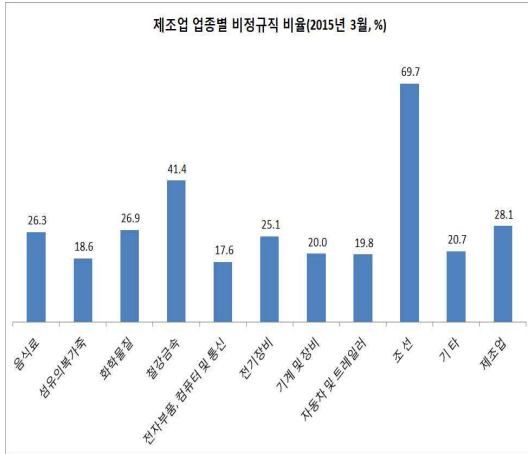
[표4]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대분류 기준)

산업(대분류)	기업수 (개)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농림어업	3	1	1	0	0	0	0	20.8	18.5	18.5	2.3
광업	1	1	1	0	0	0	0	24.3	4.1	4.1	20.2
제조업	888	1,571	1,129	441	49	48	393	28.1	3.1	3.0	25.0
전기가스수도사업	9	6	5	1	0	0	1	13.6	3.9	3.9	9.7
하수환경복원업	4	3	2	0	0	0	0	15.4	14.5	14.5	0.9
건설업	251	419	108	311	124	122	187	74.2	29.6	29.2	44.6
(생산자서비스업)	1,018	1,121	630	491	395	383	96	43.8	35.2	34.1	8.5
금융보험업	138	312	229	82	30	29	52	26.4	9.5	9.4	16.8
부동산임대업	85	92	28	65	50	50	14	70.2	54.6	54.4	15.6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38	105	83	22	16	12	6	20.8	15.1	11.6	5.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657	612	290	322	299	291	23	52.6	48.9	47.5	3.7
(유통서비스업)	513	819	542	277	105	89	172	33.8	12.9	10.9	21.0
도소매업	201	385	229	157	69	56	88	40.7	17.8	14.6	22.9
운수업	166	201	140	61	17	17	44	30.3	8.5	8.4	21.8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146	232	173	59	20	16	40	25.6	8.5	7.1	17.1
(개인서비스업)	168	254	115	139	98	76	41	54.6	38.6	30.1	16.1
숙박음식점업	80	161	58	103	74	54	29	63.9	45.8	33.3	18.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9	33	18	15	6	6	9	44.5	17.4	16.6	27.1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59	60	39	21	19	17	3	35.5	31.0	28.8	4.5
(사회서비스업)	378	400	245	155	126	123	29	38.8	31.6	30.8	7.2
공공행정	8	20	14	7	4	4	2	32.9	21.3	21.3	11.5
국방사회보장행정	8	20	14	7	4	4	2	32.9	21.3	21.3	11.5
교육 서비스업	153	190	96	95	81	80	14	49.7	42.4	42.2	7.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15	180	126	54	41	38	13	29.9	22.9	21.3	7.0
국제외국기관	2	9	9	0	0	0	0	0.3	0.3	0.3	0.0
전산업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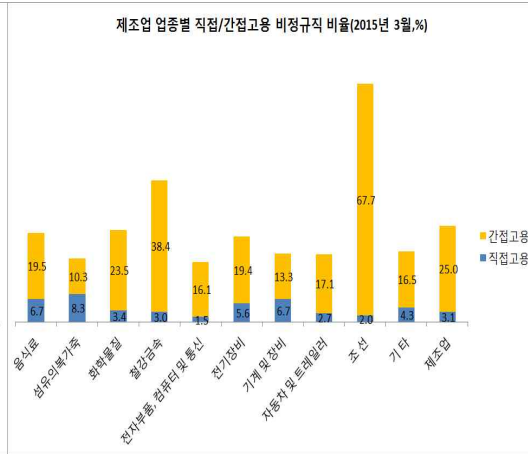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비율은 조선(69.7%), 철강금속(41.4%), 화학물질(26.9%), 음식료(26.3%), 전기장비(25.1%), 기타(20.7%), 기계및장비(20.0%), 자동차및트레일러(19.8%), 섬유 의복가죽(18.6%), 전자부품, 컴퓨터 및 통신(17.6%) 순이다.

제조업은 모든 업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특히 조선(67.7%)과 철강금속(38.4%)에서 높다.

[그림10]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비율 (2015년 3월,%)



[그림11] 제조업 업종별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2015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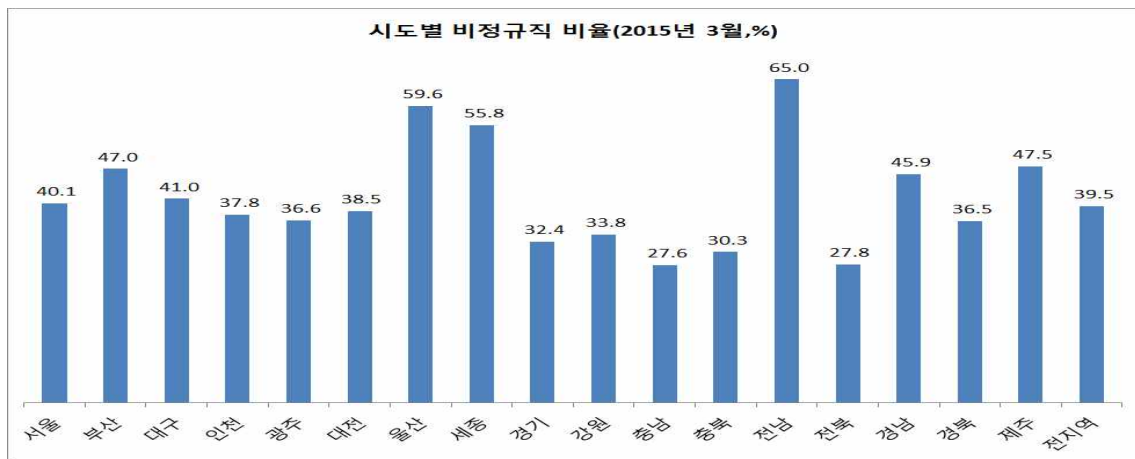
[표5]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규모(중분류 기준)

산업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음식료	123	91	32	8	8	24	26.3	6.7	6.5	19.5
섬유 의복가죽	29	24	5	2	2	3	18.6	8.3	6.9	10.3
화학물질	119	87	32	4	3	28	26.9	3.4	2.5	23.5
철강금속	99	59	41	3	3	38	41.4	3.0	3.0	38.4
전자부품, 컴퓨터 및 통신	410	338	72	6	6	66	17.6	1.5	1.5	16.1
전기장비	36	27	9	2	2	7	25.1	5.6	5.6	19.4
기계 및 장비	60	48	12	4	3	8	20.0	6.7	5.0	13.3
자동차 및 트레일러	258	207	51	7	7	44	19.8	2.7	2.7	17.1
조선	201	61	140	4	4	136	69.7	2.0	2.0	67.7
기타	237	188	49	10	10	39	20.7	4.3	4.2	16.5
제조업	1,571	1,129	441	49	48	393	28.1	3.1	3.0	25.0

5. 시도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65.0%)과 울산(59.6%), 세종(55.8%)이고, 가장 낮은 곳은 충남(27.6%)과 전북(27.8%)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전남(53.4%)과 울산(50.1%)이 가장 높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제주(38.7%), 부산(31.6%), 대구(30.9%)가 높다.

[그림12] 시도별 비정규직 비율(2015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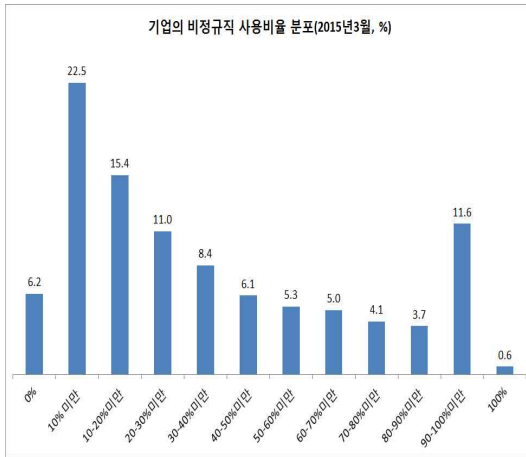
[표7]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

시도	기업수 (개)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서울	1,597	2,624	1,573	1,051	583	538	468	40.1	22.2	20.5	17.8
부산	190	161	85	76	51	48	25	47.0	31.6	29.9	15.4
대구	88	79	47	32	24	24	8	41.0	30.9	30.6	10.1
인천	110	134	83	51	18	18	32	37.8	13.6	13.5	24.2
광주	39	43	28	16	11	11	5	36.6	24.8	24.4	11.7
대전	74	79	48	30	23	21	7	38.5	29.1	26.8	9.5
울산	64	129	52	77	12	12	64	59.6	9.5	9.5	50.1
세종	14	24	11	13	4	4	9	55.8	17.7	17.7	38.1
경기	527	749	506	242	100	96	142	32.4	13.4	12.8	19.0
강원	36	36	24	12	6	5	7	33.8	15.4	15.0	18.4
충남	86	72	52	20	11	10	10	27.6	14.5	14.2	13.1
충북	65	50	35	15	10	10	5	30.3	20.5	19.6	9.9
전남	32	46	16	30	5	5	24	65.0	11.7	11.5	53.4
전북	44	39	28	11	6	6	5	27.8	15.6	15.4	12.1
경남	123	183	99	84	12	12	71	45.9	6.8	6.7	39.0
경북	123	128	82	47	14	14	33	36.5	10.9	10.7	25.6
제주	21	18	9	8	7	7	2	47.5	38.7	38.6	8.8
전지역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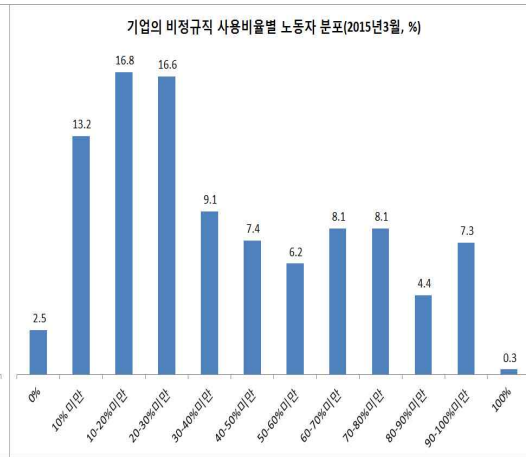
6.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

전체 3,233개 기업 가운데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201개(6.2%)고, 10% 미만 사용하는 기업이 928개(28.7%)다. 100% 비정규직만 사용하는 기업은 20개(0.6%)고, 90%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 396개(12.2%)다.

[그림13]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 분포 (2015년 3월,%)



[그림14]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별 노동자 분포(2015년 3월,%)



[표8]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별 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비율	기업수 (개)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구성(%)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0%	201	113	113	0	0	0	0	0.0	0.0	0.0	0.0
10% 미만	727	608	575	32	16	14	17	5.3	2.6	2.3	2.8
10-20%미만	498	772	653	120	43	39	77	15.5	5.5	5.0	10.0
20-30%미만	357	761	573	188	62	60	125	24.7	8.2	7.9	16.5
30-40%미만	273	416	271	145	68	62	77	34.8	16.2	15.0	18.5
40-50%미만	197	342	191	151	60	56	91	44.2	17.6	16.4	26.6
50-60%미만	170	283	127	156	69	64	86	55.1	24.5	22.6	30.6
60-70%미만	161	373	131	242	87	82	155	64.9	23.3	21.9	41.6
70-80%미만	132	373	97	276	110	89	166	74.0	29.6	23.8	44.4
80-90%미만	121	202	32	169	94	92	75	83.9	46.7	45.5	37.2
90-100%미만	376	336	13	323	275	273	48	96.0	81.9	81.2	14.2
100%	20	13	0	13	13	11	0	100	97.5	84.2	2.5
전체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0

한데 100% 비정규직만 사용한다고 응답한 20개 기업 1만 3천명 가운데 13개 기업 8천명과,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01개 기업 11만 3천명 가운데 78개 기업 (38.8%) 5만 8천명(50.9%)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력파견 용역업체이므로 실제로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그만큼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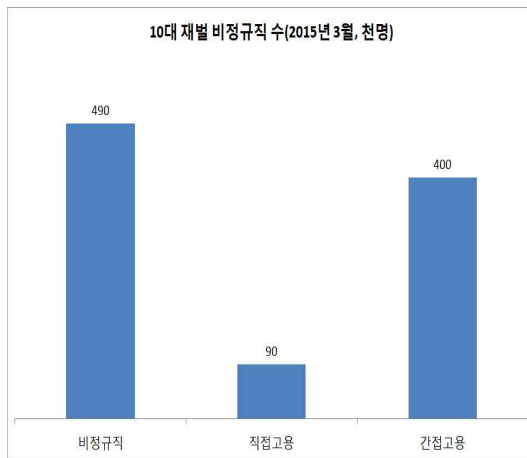
7. 재벌 기업

2015년 4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48개 대규모 기업집단에는 1,589개 기업이 속해 있다. 노동부가 2015년 3월 기준으로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는 48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 411개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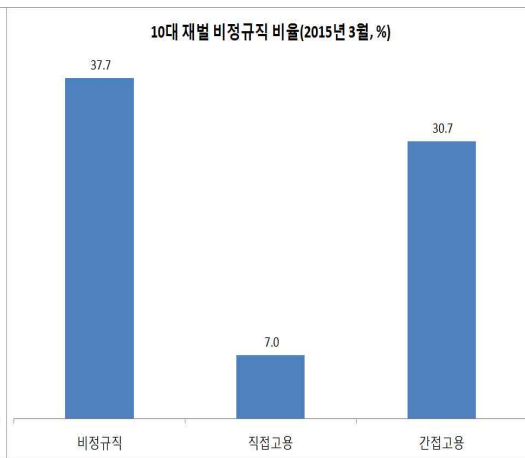
이들 411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98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1만명(41.0%)이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8만명(8.8%)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4만명(32.2%)이다.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명(37.7%)이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명(7.0%)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명(30.7%)이다.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그림15] 10대 재벌 비정규직 수
(2015년 3월,천명)



[그림16]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
(2015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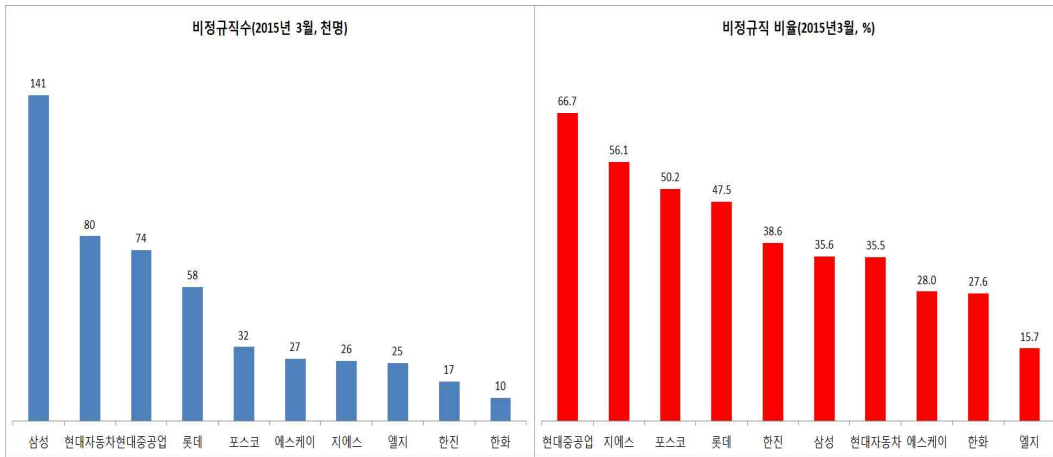
[표9] 재벌기업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산업(대분류)	기업 수 (개)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비재벌	2,822	2,609	1,607	1,002	723	695	279	38.4	27.7	26.7	10.7
재벌	411	1,984	1,171	813	175	147	638	41.0	8.8	7.4	32.2
10대 재벌	216	1,301	811	490	90	86	400	37.7	7.0	6.6	30.7
11-20대	94	387	202	186	46	25	140	47.9	11.9	6.5	36.1
21-30대	40	102	56	46	10	9	36	45.3	10.1	8.5	35.2
31-48대	61	194	103	92	28	27	63	47.2	14.6	14.0	32.5
고용형태 공시제대상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0

10대 재벌 비정규직 노동자는 삼성(14만 1천명)이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8만명), 현대중공업(7만 4천명), 롯데(5만 8천명), 포스코(3만 2천명), SK(2만 7천 명), GS(2만 6천 명), LG(2만 5천 명), 한진(1만 7천 명), 한화(1만 명) 순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현대중공업(66.7%)이 가장 높고, GS(56.1%), 포스코(50.2%), 롯데(47.5%), 한진(38.6%), 삼성(35.6%), 현대자동차(35.5%), SK(28.0%), 한화(27.6%), LG(15.7%) 순이다.

[그림17] 비정규직 수(2015년 3월,천명) [그림18] 비정규직 비율(2015년 3월,%)



[표10] 재벌그룹별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산업(대분류)	기업수 (개)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삼성	40	396	255	141	17	17	124	35.6	4.4	4.3	31.2
현대자동차	28	226	146	80	15	15	65	35.5	6.6	6.6	28.8
에스케이	30	96	69	27	4	4	23	28.0	4.4	4.0	23.6
엘지	28	160	135	25	5	4	21	15.7	2.8	2.6	12.9
롯데	25	121	64	58	26	24	32	47.5	21.2	20.0	26.3
포스코	15	64	32	32	4	4	28	50.2	6.2	6.2	44.0
지에스	17	46	20	26	9	7	17	56.1	19.8	15.4	36.3
현대중공업	8	111	37	74	3	3	71	66.7	2.8	2.8	63.9
한진	11	45	28	17	3	3	14	38.6	7.0	7.0	31.6
한화	14	36	26	10	4	4	6	27.6	11.8	11.6	15.8
케이티	14	76	45	31	11	10	20	40.5	14.4	13.2	26.1
두산	5	27	16	11	2	2	10	42.1	6.5	6.5	35.5
신세계	12	70	39	31	11	2	20	43.9	15.7	3.5	28.2
씨제이	15	64	34	30	13	2	17	47.4	20.6	2.9	26.7
엘에스	10	14	11	3	1	1	3	24.0	4.0	4.0	20.1
대우조선해양	3	53	14	39	1	1	39	73.6	1.0	1.0	72.6
금호아시아나	10	27	20	7	2	2	5	25.7	8.2	7.8	17.6

대림	6	25	7	19	4	4	15	74.2	14.9	14.9	59.3
부영	4	11	1	10	1	1	9	90.0	8.0	8.0	82.0
동부	15	20	15	5	1	1	3	23.3	6.0	5.8	17.2
현대	6	7	5	2	1	1	1	25.8	17.7	17.7	8.1
현대백화점	6	22	8	14	3	2	11	62.9	14.3	9.7	48.6
오씨아이	6	9	5	4	0	0	4	46.2	2.4	2.4	43.8
효성	8	25	17	9	2	1	7	33.8	7.5	5.1	26.4
대우건설	1	15	4	11	3	3	8	71.7	19.1	19.1	52.6
에쓰-오일	1	4	3	1	0	0	1	26.5	2.7	2.7	23.8
영풍	5	8	4	4	0	0	4	53.5	1.4	1.4	52.1
케이씨씨	4	8	7	1	0	0	1	17.7	6.0	5.9	11.7
미래에셋	2	3	3	0	0	0	0	5.5	5.3	5.3	0.3
동국제강	1	0	0	0	0	0	0.0	2.3	2.3	2.3	0.0
코오롱	9	16	9	7	2	2	5	42.5	10.2	10.2	32.3
한진중공업	2	11	3	7	1	1	6	69.0	8.9	8.9	60.0
한라	2	9	5	4	1	1	3	43.3	6.6	6.6	36.7
한국타이어	3	10	8	2	0	0	2	22.4	1.1	1.1	21.3
한국GM	1	20	16	3	0	0	3	17.1	0.1	0.1	17.0
홈플러스	3	35	22	13	5	4	8	37.3	13.9	11.3	23.5
교보생명보험	5	11	7	4	1	1	3	38.5	11.9	11.9	26.6
태광	5	8	5	4	2	2	1	43.2	25.7	25.7	17.4
세아	3	4	3	2	0	0	2	42.2	2.2	2.1	40.1
현대산업개발	3	13	1	12	2	1	10	88.9	12.9	10.4	76.0
이랜드	5	23	7	15	12	12	4	67.6	52.1	52.0	15.5
태영	1	1	1	0	0	0	0	14.9	0.9	0.9	14.0
삼천리	2	1	1	0	0	0	0	20.3	10.4	10.4	9.9
아모레퍼시픽	1	12	5	7	0	0	7	58.5	2.8	2.8	55.7
대성	6	5	3	2	1	1	1	36.5	15.1	13.8	21.4
하이트진로	1	6	3	2	0	0	2	41.5	1.9	1.9	39.5
중흥건설	1	4	0	3	0	0	3	94.1	4.2	4.2	89.9
한솔	8	7	3	3	2	2	2	50.0	25.6	25.6	24.4

8. 1만명 이상 거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 중 노동자 수가 1만명 이상인 거대기업은 61개사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43만명이고 비정규직은 60만명(41.7%)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7만명(32.9%)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13만명(8.8%)보다 많다.

현대산업개발(91.3%), 한국맥도날드(89.1%), 이랜드파크외식사업부(87.1%), 롯데건설(82.8%), 현대건설(80.8%), 현대삼호중공업(80.5%) 6개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고, 엘지전자(9.1%), 엘지디스플레이(8.7%) 2개사는 10%가 안 된다. 기업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크다.

[표11] 1만인 이상 거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회사이름	산업	노동자(명)	정규직(명)	비정규직(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효성	3	11,855	7,621	4,234	576	576	3,658	35.7	4.9	4.9	30.9
LG화학	3	16,503	13,778	2,725	103	101	2,622	16.5	0.6	0.6	15.9
아모레퍼시픽	3	12,211	5,069	7,142	342	342	6,800	58.5	2.8	2.8	55.7
포스코	3	33,884	16,899	16,985	949	949	16,036	50.1	2.8	2.8	47.3
현대제철	3	22,807	10,696	12,111	268	268	11,843	53.1	1.2	1.2	51.9
삼성전자	3	129,439	101,189	28,250	1,483	1,483	26,767	21.8	1.1	1.1	20.7
엘지전자	3	41,115	37,353	3,762	674	674	3,088	9.1	1.6	1.6	7.5
엘지디스플레이	3	35,923	32,800	3,123	81	53	3,042	8.7	0.2	0.1	8.5
삼성디스플레이	3	32,786	26,946	5,840	242	242	5,598	17.8	0.7	0.7	17.1
에스케이하이닉스	3	27,392	22,051	5,341	22	22	5,319	19.5	0.1	0.1	19.4
삼성전기	3	14,452	12,955	1,497	312	312	1,185	10.4	2.2	2.2	8.2
삼성에스디아이	3	13,780	11,116	2,664	289	289	2,375	19.3	2.1	2.1	17.2
엘지이노텍	3	10,004	8,716	1,288	222	222	1,066	12.9	2.2	2.2	10.7
현대자동차	3	76,167	61,799	14,368	3,552	3,552	10,816	18.9	4.7	4.7	14.2
기아자동차	3	38,769	33,651	5,118	254	254	4,864	13.2	0.7	0.7	12.5
한국지엠 부평공장	3	19,726	16,352	3,374	18	18	3,356	17.1	0.1	0.1	17.0
현대모비스	3	14,422	8,105	6,317	245	243	6,072	43.8	1.7	1.7	42.1
현대중공업	3	71,580	25,009	46,571	1,919	1,919	44,652	65.1	2.7	2.7	62.4
대우조선해양	3	50,283	12,973	37,310	453	453	36,857	74.2	0.9	0.9	73.3
현대삼호중공업	3	21,220	4,147	17,073	136	136	16,937	80.5	0.6	0.6	79.8
현대미포조선	3	12,269	3,635	8,634	120	120	8,514	70.4	1.0	1.0	69.4
삼성중공업(건설)	6	41,157	13,981	27,176	775	775	26,401	66.0	1.9	1.9	64.1
현대건설	6	24,164	4,642	19,522	4,013	3,989	15,509	80.8	16.6	16.5	64.2
GS건설	6	19,573	5,734	13,839	2,983	2,983	10,856	70.7	15.2	15.2	55.5
대림산업	6	17,138	4,657	12,481	2,561	2,561	9,920	72.8	14.9	14.9	57.9
대우건설	6	14,838	4,200	10,638	2,827	2,827	7,811	71.7	19.1	19.1	52.6

SK건설	6	14,698	5,069	9,629	1,519	1,519	8,110	65.5	10.3	10.3	55.2
현대엔지니어링	6	13,365	3,535	9,830	1,974	1,937	7,856	73.6	14.8	14.5	58.8
롯데건설	6	12,242	2,102	10,140	1,761	1,761	8,379	82.8	14.4	14.4	68.4
현대산업개발	6	12,172	1,054	11,118	1,090	1,090	10,028	91.3	9.0	9.0	82.4
삼성엔지니어링	6	11,586	5,432	6,154	1,475	1,475	4,679	53.1	12.7	12.7	40.4
포스코건설	6	12,959	3,535	9,424	1,827	1,827	7,597	72.7	14.1	14.1	58.6
롯데리아	7	12,078	2,468	9,610	9,604	9,023	6	79.6	79.5	74.7	0.0
삼성물산	7	27,055	7,868	19,187	1,670	1,670	17,517	70.9	6.2	6.2	64.7
롯데쇼핑	7	43,294	24,659	18,635	6,182	5,446	12,453	43.0	14.3	12.6	28.8
홈플러스	7	27,676	17,824	9,852	3,328	3,299	6,524	35.6	12.0	11.9	23.6
이마트	7	36,886	25,883	11,003	2,407	1,511	8,596	29.8	6.5	4.1	23.3
씨제이대한통운	8	14,977	4,893	10,084	395	395	9,689	67.3	2.6	2.6	64.7
서울메트로	8	10,688	9,341	1,347	192	192	1,155	12.6	1.8	1.8	10.8
대한항공	8	24,624	18,156	6,468	1,510	1,500	4,958	26.3	6.1	6.1	20.1
아시아나항공	8	10,561	8,416	2,145	552	537	1,593	20.3	5.2	5.1	15.1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분점	9	11,263	1,457	9,806	9,806	9,806	0	87.1	87.1	87.1	0.0
씨제이푸드빌	9	15,130	3,921	11,209	9,340	8	1,869	74.1	61.7	0.1	12.4
삼성웰스토리	9	12,582	2,723	9,859	2,972	2,972	6,887	78.4	23.6	23.6	54.7
한국맥도날드	9	10,543	1,146	9,397	9,391	8,316	6	89.1	89.1	78.9	0.1
KT	10	41,048	23,009	18,039	373	373	17,666	43.9	0.9	0.9	43.0
케이티스	10	10,029	6,634	3,395	3,348	3,229	47	33.9	33.4	32.2	0.5
삼성에스디에스	10	19,125	14,393	4,732	286	286	4,446	24.7	1.5	1.5	23.2
국민은행	11	25,102	21,082	4,020	455	455	3,565	16.0	1.8	1.8	14.2
농협은행	11	18,994	13,803	5,191	2,994	2,994	2,197	27.3	15.8	15.8	11.6
신한은행	11	19,012	13,982	5,030	542	232	4,488	26.5	2.9	1.2	23.6
우리은행	11	18,923	15,248	3,675	462	462	3,213	19.4	2.4	2.4	17.0
하나은행	11	11,442	8,974	2,468	346	346	2,122	21.6	3.0	3.0	18.5
케이티씨에스	14	10,927	7,530	3,397	3,393	2,654	4	31.1	31.1	24.3	0.0
에스원	14	16,240	5,822	10,418	444	444	9,974	64.2	2.7	2.7	61.4
유니에스	14	10,976	2,606	8,370	8,370	8,370	0	76.3	76.3	76.3	0.0
케이텍맨파워	14	10,403	7,725	2,678	2,678	2,678	0	25.7	25.7	25.7	0.0
가톨릭학원	15	16,726	11,840	4,886	2,686	2,678	2,200	29.2	16.1	16.0	13.2
연세대학교	16	18,607	12,150	6,457	3,707	3,684	2,750	34.7	19.9	19.8	14.8
아산사회복지재단	17	11,247	7,904	3,343	1,019	1,015	2,324	29.7	9.1	9.0	20.7
제일모직	18	12,048	4,415	7,633	2,602	2,602	5,031	63.4	21.6	21.6	41.8
61개사		1,428,685	832,673	596,012	126,119	112,149	469,893	41.7	8.8	7.8	32.9

9. 비정규직 증감

지난 1년 동안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8%p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 500인 미만 기업은 감소했고 1천인 이상 기업은 증가했다.

재벌 비계열사는 0.9%p 증가했고, 재벌 계열사는 2.9%p 증가했다. 10대 재벌 계열사는 한진(14.0%p), GS(7.7%p), 현대중공업(3.9%p), 한화(3.2%p), 현대자동차(2.0%p), 삼성(0.9%p), SK(0.3%p), 롯데(0.3%p)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고, LG(-0.8%p)와 포스코(-1.0%p)는 감소했다.

산업별로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19.2%p)과 숙박음식점업(10.7%)은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 비율이 10%p 이상 증가했다.

[표12] 비정규직 비율 증감 현황(2014~15년)

구분	증감(%p)			구분	증감(%p)			
	비정규 직비율	직접 고용	간접 고용		비정규 직비율	직접 고용	간접 고용	
규모	300인미만	-4.4	-3.4	-0.9	농업임업어업	0.0	0.0	0.0
	300-499인	-0.5	0.4	-0.9	광업	0.1	-0.5	0.6
	500-999인	0.0	0.2	-0.2	제조업	0.7	-0.4	1.1
	1000-4999인	1.5	1.4	0.1	전기가스증기수도	-0.6	-1.1	0.5
	5000-9999인	4.9	3.4	1.5	하수폐기물처리원	0.6	1.0	-0.4
	1만인이상	2.5	0.2	2.3	건설업	3.6	-2.5	6.1
재벌	비재벌	0.9	0.8	0.1	도매소매업	3.8	1.9	1.9
	재벌	2.9	1.1	1.8	운수업	3.4	0.4	3.0
	10대재벌	1.7	0.4	1.3	숙박음식점업	10.7	11.7	-0.9
	11-20대재벌	7.0	5.7	1.3	출판영상방송통신	0.6	1.0	-0.4
	21-30대재벌	0.4	-1.1	1.5	금융보험업	-0.2	0.4	-0.6
	31-48대재벌	4.3	-2.2	6.5	부동산임대업	-1.4	-1.7	0.3
10대 재벌	삼성	0.9	1.1	-0.2	전문과학기술서비	3.0	3.4	-0.4
	현대자동차	2.0	0.5	1.5	사업시설관리사업	0.7	1.7	-1.0
	에스케이	0.3	-1.0	1.3	공공행정국방사회	0.1	0.1	0.0
	엘지	-0.8	-0.3	-0.5	교육서비스업	4.5	5.0	-0.5
	롯데	0.3	-1.3	1.6	보건업사회복지서	1.3	1.5	-0.2
	포스코	-1.0	0.9	-1.8	예술스포츠여가서	19.2	10.4	8.8
	지에스	7.7	1.8	6.0	협회단체수리기타	0.5	1.2	-0.7
	현대중공업	3.9	0.5	3.4	국제외국기관	-1.8	-1.8	0.0
	한진	14.0	0.7	13.3	전체	1.8	0.9	0.9
	한화	3.2	0.7	2.6				

10. 합의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합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5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30만명(전체 노동자의 12.2%)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4.3%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다수(사업체수 99%, 노동자수 88%)가 중소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9988 신조어(新造語)가 생겨났고,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평계거리가 되어 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300인 이상 대기업 3,233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59만명으로 통계청 조사(230만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5%로 통계청 조사(14.3%)보다 3배 높다. 실제로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에서 2012년 정부와 민간 대기업 노동자는 696만명(전체 노동자의 43.7%)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의 노동정책 방향은 노동시장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대기업이 올바른 노동정책을 선택하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82만명(39.5%)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0만명(19.5%),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2만명(20.0%)이다. 한데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61만명을 정규직 29만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0만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2만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11만명(45.8%),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1만명(32.8%)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0만명(13.0%)으로 줄어든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7%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1.7%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4.3%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2.9%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넷째,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7.7%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7%)이 직접고용 비정규직(7.0%)보다 4배 많다. 특히 현대중공업, GS, 포스코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162만명(37.3%)이던 비정규직이 올해 182만명(39.5%)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